

2024

Style 조선일보

Ultimate
Luxury Lifestyle
Magazine

Special Edition

F/W Issue



MONTBLANC

100 Years of Meisterstück.
Lee Jinuk and his Extreme 3.0 Sling Bag
with M LOCK 4810 Buckle.

Prologue to History

역사적으로도 의미 있는 필기구의 개발과 동시에 시작된 브랜드 몽블랑(Montblanc). 만년필, 볼펜의 발명부터 레터와 위치로 확장되어가는 라인업과 어느 분야도 허투루 하지 않는 위대한 장인 정신의 역사를 되돌아본다.



역사의 시작

1748년 영국의 요한 안센이 금속 펜을 발명한 이후 금속과 여러 소재를 다듬어 더 좋은 펜을 만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시작됐다. 이후 1906년 친구 사이인 함부르크의 은행가 알프레드 네헤미아스(Alfred Nehemias)와 베를린 태생의 엔지니어 아우구스트 에버스타인(August Eberstein)은 휴가차 방문한 미국에서 놀라운 파운틴 펜을 발견한다. 이 펜의 편리함에 매료된 그들은 여행에서 돌아온 후 베를린 지역에 '짐플리치시무스 만년필(Simplicissimus Füllhalter)'이라는 작은 만년필 제조 공방을 열었다. 이 단어는 영어의 '심플리스트(simplest)'와 같은 뜻으로 쓰이는데, 잉크통이 펜에 내장되어 있는 디자인의 단순함에서 착안해 공방 이름으로 사용했다. 이후 1908년 함부르크의 사업가 요하네스 포스(Johannes Voss)가 합류하며 '심플로 필러 펜 컴퍼니'라는 사명으로 함부르크에



1 함부르크에 위치한 몽블랑 본사 초창기 모습. 2 마이스터스틱의 상징인 149의 1952년 출시 당시 모델.

본사를 창립하고 회사 등록을 완료했다. 초기엔 주문을 받아 납품하며 만년필 제작에 대한 노하우를 쌓았지만, 그들의 최종 목표는 '고품격 골드 만년필 제작'이었다. 독일 장인들의 기술로 제작한 품질 높은 만년필만이 미국 중심의 만년필 시장에서 유일한 승자가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1년 후 1909년 작가 스탕달의 책 제목에서 따온 '루즈 & 느와(Rouge & Noir)'라는 이름의 잉크가 새지 않는 만년필을 개발해 처음으로 시장에 출시했다. 사람들이 만년필을 사용하면서 겪는 불편을 찾아내 독일 장인의 손끝으로 해결한 것이다. 더불어 1913년 드디어 몽블랑의 상징과도 같은 엠블럼이 탄생한다. 유럽에서 가장 높은 산인 몽블랑의 눈 덮인 봉우리를 형상화한 화이트 스타는 몽블랑의 열정과 헌신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1919년에는 함부르크에 첫 직영 매장을 오픈하고 이어 베를린과 라이프치히, 브레슬라우, 하노버와 브레멘까지 매장을 확장했다. 그 후 5년이 흐른 1924년, 드디어 몽블랑의 핵심 제품이자 역사적인 아이콘이 될 만년필이 탄생한다. 바로 '걸작'이란 의미의 '마이스터스틱(Meisterstück)'이 그 주인공이다. 전하는 말에 따르면 일부 고객은 '일요일용, 즉 매일 사용하는 용도가 아닌 훌륭한 경험을 선사하는 특별한 필기구를 요청한 것이 시작이었다. 우연히도 몽블랑에서 수년간 사바어-페어(savoir-faire, 노하우)를 연마해온 장인들은 퍼스널 프로젝트로 자신들을 위한 유일무이한 필기구를 제작하고 있었다. 이 필기구는 뛰어난 장인 정신을 보여주었으므로 독일어로 '걸작(masterpiece)'이라는 의미의 마이스터스틱이라 부르게 되었다. 이처럼 운명적인 우연으로 최초의 마이스터스틱 컬렉션이 탄생하게 되었고, 이는 빠르게 문화적 아이콘이자 명품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아갔다.

장인 정신으로 지나는 시간

최초의 마이스터스틱 필기구 제품군은 1924년에 심플로 필페더게젤샤프트(Simplo Füllfeder-gesellschaft, 후에 몽블랑-심플로Montblanc-Simplo로 변경)로 개발되었다. 처음부터 몽블랑산의 높이를 의미하는 숫자, '4810'은 마이스터스틱과 본질적으로 결부되어왔다. 네 자리 숫자는 패키징에 뚜렷하게 표시되었고, 캡에 새겨졌으며, 1930년부터는 님(엔축)에도 각인되었다. 1934년과 1935년, '몽블랑 심플로 GmbH(Montblanc Simplo GmbH)'로 사명을 바꾸면서 몽블랑 만년필의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와 함께 여러 혁신적인 제품을 시장에 선보였는데, 그중 하나가 마이스터스틱 라인의 이름으로 출시된 첫 신규 디자인이다. 원통형 셰이프, 싱글 보드 캡 링, 대담한 클립 디자인과 투톤 님을 도입했으며, 이를 통해 1920년대에 출시된 마이스터스틱 모델과 구별되는 발전된 디자인으로 진화했다. 1937년에는 캡 부분에 3개의 골드 링이 있는 첫 번째 마이스터스틱이 출시되었다. 시선을 사로잡는 이 디테일은 초창기에 회사 창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세 사람, 빌헬름 잠보어(Wilhelm Dziambor), 크리스티안 라우센(Christian Lausen), 클라우스 요하네스 포스(Claus Johannes Voss)를 상징한다. 몽블랑은 다양한 역사적 포트폴리오도 지니고 있다. 1963년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독일 방문 시 방명록에 이름을 적을 필기구를 찾던 독일 총리에게 마이스터스틱을 빌려줬다는 일화는 지금도 유명하다.

1989년에는 함부르크에 본사 건물을 새로 지어 몽블랑의 디자인 조직과 생산 조직, 경영 조직은 물론 몽블랑 박물관까지 하나의 건물에 배치해 유기적인 생산과 판매를 도모했다. 이와 함께 1990년 홍콩을 시작으로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기도 했다. 또한 몽블랑은 럭셔리에 대한 대중의 신념으로 선구자적인 역할도 하고 있다. 세계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한 아티스트를 기리는 마스터 오브 아트(Masters of Art), 작가 에디션(Writers Edition), 그레이트 캐릭터 에디션(Great Character Edition) 등의 리미티드 에디션을 매년 선보이고 있으며 레터스 라이브(Letters Live) 후원회와 청소년을 위한 글쓰기 교육 프로그램 지원과 같은 다양한 문화 예술 사업을 펼치며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또 다른 혁신의 포트폴리오

몽블랑은 만년필 제작 관련 노하우와 장인 정신에 입각해 가죽과 위치까지 영역을 확장해왔다. 1935년 장인들이 만드는 가죽 명품으로 유명한 독일 오펜바흐 근교에 스톤 레터 아이템을 생산할 가죽 공방을 세우고, 가죽 소재의 펜 홀더와 노트 등과 같은 문구류를 생산했다. 이때부터 탄생한 몽블랑 레터 컬렉션은 모두 마이스터스틱 특유의 디자인 코드를 담아낸다. 더불어 2012년엔 이탈리아 피혁 산업과 장인 정신의 보고장인 피렌체 인근의 스킨디에 기증한 가죽 공방을 더욱 확장한 펠레테리아(Pelleteria)를 설립했다. 이곳에서는 전통적인 장인 정신과 최신 피혁 가공 기술을 접목해 명품 레터 아이템을 생산한다. 몽블랑은 위치 제작에도 관심을 가져, 1998년 세계 최대 명품 그룹 중 하나인 리치몬드 그룹의 일원이 되기 1년 전인 1997년 스위스 쥐라산맥 지역 르 로를에 위치 매뉴팩처를 설립한다. 곧 몽블랑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국제고급시계박람회(Salon International de la Haute Horlogerie, SIHH)에 마이스터스틱 시계 컬렉션을 출품하며 명성을 드높인다. 2006년 리치몬드 그룹은 1858년에 설립된, 크로노그래프로 유명한 헨드메이드 무브먼트 전문 업체인 스위스의 미네르바 매뉴팩처를 인수하고 2008년엔 몽블랑 매뉴팩처가 자체 제작한 최초의 무브먼트인 MB R100 칼리버를 공개한다. 현재 빌레레 매뉴팩처의 몽블랑 무브먼트 혁신 센터는 미네르바 시절부터 이어져온 위치메이킹 전통을 계승하며 고도로 정교하고 혁신적인 컴플리케이션 시계와 무브먼트를 개발·제작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로써 몽블랑은 만년필과 필기구뿐 아니라 레터와 위치 분야에서도 하이 퀄리티 명품 하우스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어떤 제품을 만들더라도 허투루 하지 않는 진정한 장인 정신에 기반한 몽블랑이 진정한 명품 브랜드로 인정받는 이유다.



3

“ 디지털 시대의 정잡에서도 마이스터스틱은 여전히 문화와 창의력, 연결성의 상징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



100주년의 역사를 조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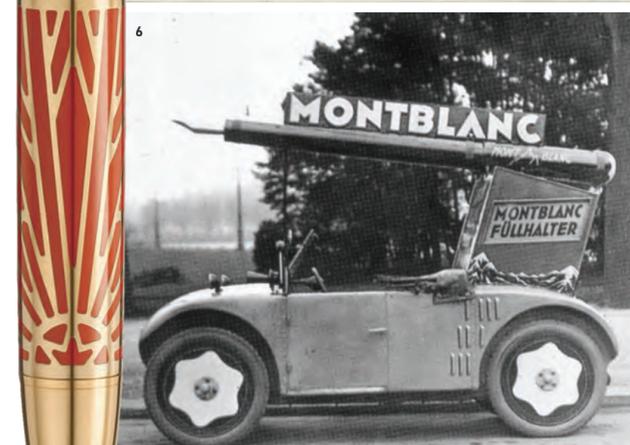
2024년에 몽블랑의 제품 중 하나가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바로 몽블랑의 아이콘인 필기구, 마이스터스틱이 탄생 100주년을 맞은 것이다. 한 브랜드가 100년을 넘기기도 힘든데 한 제품이 100주년을 맞이한다는 건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깊다. 그 제품이 인류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면 더욱 그러하다. 몽블랑은 마이스터스틱의 기원을 조명하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영향력을 기념하는 컬렉션을 선보이며 위대한 필기 문화 아이콘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한다. 더불어 새로운 캠페인을 공개하며 마이스터스틱 탄생 100주년을 축하한다.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기록의 역사를 재조명할 수 있는 필기구, 만년필의 탄생과 함께해온 브랜드이기에 이 100주년은 그 어떤 것보다 더 역사적이고 뜻깊은 순간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도 몽블랑은 인간의 기록의 역사와 그로 인해 탄생하는 다양한 콘텐츠, 문화 등을 남기고 기념하며 우리 삶과 문화 전반에 함께하는 유일무이한 브랜드로 자리 잡을 것이다. 에디터 성명민



1 1950년대 몽블랑 만년필의 광고 이미지. 2 사명을 개명하기 전 심플로 필페더게젤샤프트의 카탈로그 비주얼. 3 1909년 처음 출시한 잉크가 새지 않는 만년필로 작가 스탕달의 책에서 이름을 따온 '루즈 & 느와(Rouge & Noir)'. 4 마이스터스틱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출시한 오리지널 컬렉션 솔리테어 르그랑 에디션. 제품 디자인 곳곳에 헤리티지를 녹여냈다. 5 혁신과 창의성을 강조하는 몽블랑의 옛 광고 비주얼. 6 몽블랑 타이포그래피로 이루어진 간판과 로고를 일컫는 바퀴를 단 차가 인상적인 몽블랑의 옛 광고 비주얼.



5



6

The Masterpieces in 100 years

1924년, 몽블랑은 새로운 필기구를 선보이면서 필기 문화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독일어로 '결작'이라는 뜻을 지닌 마이스터스틱(Meisterstück)이라 명명한 올 블랙 만년필은 절대적인 장인 정신의 작품으로 그 지위를 1백 년에 걸쳐 유지해왔다. 올해는 마이스터스틱 탄생 100주년에 경의를 표하며 레더 아이템, 워치, 필기구 카테고리에서 각각 신제품을 선보인다.

지난 5월, 여러 수상 경력을 지닌 감독이자 시나리오 작가인 웨스 앤더슨이 집필하고 디렉팅한 쇼트 필름과 함께 마이스터스틱 탄생 100주년 캠페인을 전개했다. 유니크한 시각적 미학과 신비롭고 파격적인 스토리텔링의 만남을 보여주는 웨스 앤더슨만의 시그니처 스타일로 몽블랑을 세상에 다시 소개했다. 쇼트 필름의 이야기는 3명의 캐릭터, 즉 배우 루퍼트 프렌드, 제이슨 슈왈츠먼과 웨스 앤더슨이 몽블랑 산 정상에 위치한 가상의 몽블랑 본사에서 메종을 소개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몽블랑의 마이스터스틱 만년필에 대해 토론하며 전개된다. 이후, 상징적인 마이스터스틱 필기구의 탄생 100주년에 경의를 표하고 각 컬렉션에서 출시한 새로운 몽블랑 레더 제품을 조명하는 비주얼로 완성한 캠페인의 두 번째 챕터를

공개했다. 몽블랑산의 눈 덮인 봉우리와 앤더슨이 지난 쇼트 필름에서 상상했던 독특한 몽블랑 유니버스로 관객들을 데려간다. 캠페인의 첫 번째 챕터에서 본 익숙한 얼굴인 배우 루퍼트 프렌드, 한국 배우이자 몽블랑 마크 메이커 이진욱, 중국 배우이자 몽블랑 글로벌 브랜드 앰배서더 징보란이 포토그래퍼 찰리 그레이의 카메라에 포착되었다. 특히 캠페인 비주얼에서는 블랙 시가형 디자인과 3개의 골드 링, 그리고 수공 제작한 골드 님을 갖춘 아이코닉한 마이스터스틱 만년필과 함께 라벤더 그레이 컬러로 새롭게 선보이는 익스트림 3.0 레더 컬렉션을 만나볼 수 있다. 1920년대 몽블랑 마케팅 자료에서 영감을 받은 독창적인 기하학적 모티브와 산악인들이 사용하는 안전하면서도 다루기 쉬운 클로저에서 영감을 받은 혁신적인 M

“루퍼트 프렌드, 징보란, 이진욱이 등장하는 마이스터스틱 100주년 캠페인의 두 번째 챕터에서는 각 컬렉션에서 새로운 몽블랑 레더 제품을 조명하는 일련의 비주얼이 이어진다”



LOCK 4810 버클을 갖춘 이 템포러리 레더 컬렉션은 몽블랑의 풍부한 헤리티지에 스타일과 기능성을 모두 갖춘 현대적이고 대담한 세이프를 결합했다. 주요 제품으로는 익스트림 3.0 M LOCK 4810 버클 백팩, 루퍼트 프렌드와 징보란이 착용한 익스트림 3.0 M LOCK 4810 버클 142 미니 백, 그리고 이진욱이 크로스 보드로 착용한 익스트림 3.0 M LOCK 4810 버클 슬링 백이 있다. 몽블랑산을 배경으로 고급스럽고 남성적인 우아함, 몽블랑이라는 브랜드와 닮은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는 캠페인 비주얼은 매우 인상적이어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캠페인은 함부르크에 있는 몽블랑 하우스에서도 직접 만나볼 수 있으며, 캠페인의 주인공처럼 몽블랑 제품과 연출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장인 정신의 완성, 레더 아이템

필기구를 기반으로 디자인한 마이스터스틱 100주년 기념 캡슐 컬렉션과 익스트림 3.0 멀티컬러 캡슐 컬렉션을 선보인다. 우선 100주년 기념 캡슐 컬렉션 중 필기구 파우치 또는 홀더는 1926년에 메종이 최초로 제작한 레더 제품이다. 마이스터스틱의 윤곽선이 가장 외부 디자인에 우아하게 통합되어 있는데, 단순히 기능적인 필기구 홀더에 그치지 않고 몽블랑을 정의하는 고차원 장인 정신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이외에도 마이스터스틱 100주년 기념 캡슐 컬렉션에는 펜 케이스가 포함된 브리프케이스, 다양한 형태의 메신저 백이 있다. 익스트림 3.0 멀티컬러 캡슐 컬렉션은 특수 프린트 기술로 모든 아이템에 입체적인 고급스러움을 더해 주는 멀티컬러 효과를 연출해 특별함을 더했다. 새로운 라벤더 그레이 색조로 재해석한 익스트림 3.0 컬렉션은 아이덴티티 확장하고 대담하고 현대적인 디자인 비전을 담았으며, 뛰어난 성능과 내구성을 결합했다. M LOCK 4810 백팩, M LOCK 4810 미니 사이즈 몽블랑 142 백, M LOCK 4810 슬링 백, 그리고 손목 스트랩으로 착용할 수 있는 파우치를 라벤더 그레이 컬러로 선보인다. 이에 더해 카드 홀더, 지갑, 키 체인을 포함한 스몰 레더 제품군으로 구성되었다.

- 1 마이스터스틱 필기구 탄생 100주년에 경의를 표하고 각 컬렉션에서 새로운 몽블랑 레더 제품을 조명하는 일련의 비주얼로 완성한 캠페인의 두 번째 챕터.
- 2 가방 외부에 빈티지한 펜 파우치가 결합된 마이스터스틱 스몰 메신저백.
- 3 이번 시즌 대표 제품인 M LOCK 4810 버클 슬링백.
- 4 몽블랑 스타 레거시 니콜라스 휘섹 크로노그래프 마이스터스틱 100주년 리미티드 에디션.
- 5 마이스터스틱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몽블랑 마이스터스틱 오리지널 컬렉션.
- 6 만년필 님모양의 레더 디테일이 돋보이는 마이스터스틱 미니 메신저백.
- 7 익스트림 3.0 키 포크.
- 8 과거 아카이브에서 영감을 받은 리스트 컬러의 마이스터스틱 1구 펜 슬립.
- 9 마이스터스틱 100주년 기념 이미지가 그려진 #146 노트.

필기구와 손목시계의 만남

크로노그래프의 창시자, 니콜라스 휘섹이 발명한 계측기는 두 개의 회전 카운터에 잉크를 떨어뜨려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었다. 올해 메종은 몽블랑 필기구 출시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만년필의 디자인 코드에서 영감을 받은 리미티드 에디션 스타 레거시 니콜라스 휘섹 크로노그래프 마이스터스틱 100주년을 선보인다. 5백 개 한정 제작한 이 타임피스는 43mm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와 엘레게이터 프린트를 더한 교체식 블랙 카프 레더 스트랩과 함께 제공된다. 마이스터스틱과 연관된 특징은 타임피스의 다이얼 부분과 케이스 백의 다양한 미학적 디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블랙 다이얼에 장식된 발광 프린팅은 1920년에 제작된 필기구의 청사진을 표현한 것이다. 중앙에서 벗어난 시, 분 다이얼에도 앰블럼 디자인의 스케치가 담겨 있다. 이번에는 모든 마이스터스틱의 캡 부분과 몽블랑 타임피스의 크라운에 있는 앰블럼의 치수표를 참조했다. 메종에서 최초로 자체 제작한 셀프 와인딩 방식의 매뉴팩처 모노푸저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 MB R200을 통해 작동한다. 레더뿐 아니라 워치에도 가득 담긴 마이스터스틱의 헤리티지를 느껴보자.

뉴 클래식 of 탄생, 마이스터스틱

1백 년에 걸쳐 꾸준한 명성을 얻고 있는 몽블랑의 마이스터스틱을 기념하는 마이스터스틱 오리지널 컬렉션을 선보인다. 오랜 세월 고수한 디자인에서 한발 더 나아가 광범위한 몽블랑 아카이브의 오리지널 콘셉트를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각 에디션은 숫자 '100'과 연도 '1924' 및 '2024'를 표시한 디자인 님으로 장식되었다. 또 특별히 디자인한 캡 랩에는 두 가지 중요한 연도를 새겼다. 처음엔 '마이스터스틱'이라는 이름이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었지만, 제품명이 그 자체로 아이콘으로 자리 잡으면서, 원래의 독일어 버전만 유지하게 되었다. 클립 드롭이 있는 에디션의 구부러진 클립은 고객이 클립을 선택할 수 있었던 1920년대에 존재한 매우 다양한 클립 버전이 경의를 표하는 것이다. 캡의 프레스스 레진은 초기 마이스터스틱 필기구에 장식된 다양한 마블 효과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했다. 그리고 이는 오늘날의 한층 진보된 생산 기법에서 의도적으로 도입해온 녹은 잉크를 연상시키는 효과를 보여준다. 마이스터스틱 오리지널 컬렉션의 디자인 영감이 된 오리지널 요소에 경의를 표하며, 모든 앰블럼은 각각의 에디션 컬러로 둘러싸여 있다. 문의 1877-5408, www.montblanc.com 에디터 윤지경

1924년 세상에 처음 등장한 이래로
아이코닉한 필기구로 자리 잡은 몽블랑의
마이스터스틱(Meisterstück). 그리고 1백 년이
지난 지금, 몽블랑의 특별한 캡슐 컬렉션과
리미티드 에디션 위치, 새로운 만년필
컬렉션을 선보이며 마이스터스틱
탄생 100주년을 기념한다.

the GREATEST



(왼쪽부터 차례대로) 익스트림 3.0
M LOCK 4810 버클 백팩 레더에
세 가지 컬러 디지털 프린팅을 더해
입체적이면서도 고급스러운 효과를
연출했다. 또 내부에는 노트북 전용
섹션과 2개의 필기구를 보관할 수
있는 수납공간으로 실용성을 높였다.
2백70만원, 익스트림 3.0 M LOCK
4810 버클 슬링 백 몽블랑의 신약 탐험
정신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한 M LOCK
4810 버클이 달린 조절 가능한 스트랩을
장착했으며, 콤팩트한 사이즈임에도
내부에 포켓과 신용카드 슬롯을 갖춰
수납력이 뛰어나다. 1백91만원.

레더 테크노 매트 66만원, 레더 라운드 테크노 트레이 스물 22만원, 방 잉크 30만원, 마이스터스틱 오리진 #03 노트 15만원.



(왼쪽부터 차례대로) 마이스터스틱 오리진
컬렉션 솔리데어 르그랑 만년필 부분적으로
코팅 컬러 레커를 더한 골드 코팅 캔과 배럴에
새긴 정교한 패턴이 특징이며, 클립은 최초의
마이스터스틱 필기구 일부에서 볼 수 있는
초기 클립 형태에 대한 오마주다. 캡에는
마이스터스틱 로고를 가미했고, 솔리드 골드
납에는 100주년 기념 에디션을 의미하는 연도
1924, 2024와 함께 숫자 100이 표기되어 있다.
3백90만원, 마이스터스틱 오리진 컬렉션 두에
르그랑 만년필 블루 레커와 플래티넘으로
코팅한 캡에 새긴 패턴에서 정교한 세공
기술이 느껴지며, 마이스터스틱 로고를 발견할
수 있다. 배럴은 고급 블루 레진으로 완성해
심플하고 도시적인 느낌을 배가했다. 특별한
100주년 기념 디자인의 수공 로동 코팅
Au750 골드 납 소재로 펜촉을 제작했다. 2
백36만원, 마이스터스틱 오리진 컬렉션 두에
클래식 만년필 그린 레커로 코팅한 골드 코팅
캡의 감각적인 컬러감과 캡 옆부분에 장식한
마이스터스틱 레이저 인그레이빙 로고가
고급스러움을 부각한다. 배럴은 고급 그린
레진을 사용했으며, 100주년 기념 에디션으로
1924, 2024 연도와 함께 숫자 100이 솔리드
골드 납에 장식되어 있다. 2백36만원.

TRIBUNE

(위부터 차례대로) **마이스타스틱 스몰 메신저 백** 고급스러운 블랙 레더 소재로 소지품을 수납할 수 있는 내부 오픈 포켓과 필기구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빈티지 펜 파우치 스타일의 외부 수납공간을 갖추었으며, 스타일리시하면서도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완성했다. 2백38만원. **마이스타스틱 브리프 케이스** 마이스타스틱 100주년을 기념해 외부에는 빈티지 펜 파우치의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은 필기구 전용 케이스를 장착해 3개의 필기구를 수납할 수 있다. 내부에는 13인치 노트북 수납공간과 지퍼 포켓 1개, 오픈 포켓 2개를 포함한 추가 수납공간이 있다. 4백13만원.



(위부터 차례대로) **몽블랑 아이스드 씨 오토매틱 데이트** 블랙 글러시어 패턴 다이얼과 따뜻한 느낌의 브론즈 톤 케이스의 조화로 도회적 감각을 선사한다. 부식과 녹에 대한 내성이 높은 쿠파르 알루미늄으로 제작한 41mm 케이스가 특징이며, 38시간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는 오토매틱 칼리버 MB 24.17로 구동한다. 5백52만원. **몽블랑 스타 레거시 니콜라스 휘색 크로노그래프** 마이스타스틱 100주년 리미티드 에디션 5백 피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43mm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와 교체 가능한 엘라게이터 프린트 블랙 카프 레더 스트랩을 매치했다. 블랙 다이얼의 루미너스 프린트는 19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필기구 도면의 모습을 드러내며, 마이스타스틱 캠페에서 볼 수 있는 몽블랑 스노우 캡 엠블럼을 동일한 사이즈로 타임피스의 크라운에 더했다. 몽블랑 모노푸셔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 MB R2000으로 구동한다. 1천2백76만원. 문의 1877-5408, www.montblanc.com **에디터 윤자경**



Extreme 3.0 Backpack
with M LOCK 4810 Buckle

MONTBLANC